제7강 전설과 연극의 세계

1. 백사, 사람을 꿈꾸다-백사전과 4대 전설

*** 중국의 4대 전설-우랑직녀/ 맹강녀/ 양축/ 백사전**

(1) 우랑직녀牛郎織女

소를 치는 가난한 청년 우랑,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막내딸 직녀. 서로 사랑하다.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 왕모, 비녀로 하늘에 금을 그으니 출렁이는 천하天河, 즉 은하수가 되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일 년에 한 번, 칠석날 만나는 우랑과 직녀. 오작교.
봉건시대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랑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이야기.

(2) '맹강녀곡도장성孟姜女哭倒長城 Mengjiangnü kudao Changcheng'

'맹강녀가 울어 장성을 무너뜨리다'라는 유명한 전설의 주인공, 맹강녀.
맹씨 집안과 강씨 집안 사이에 자라난 조롱박에서 태어나다.

당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축조하던 때, 많은 장정들이 끌려가 민심이 흉흉함. 게다가 장성을 지으면 자꾸 무너져, 사람을 묻어야 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음. 그러던 어느 날 유행하기 시작한 노래, "만리장성 짓는 곳에 만희량萬喜良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묻으면 사람 1만 명을 묻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네."
내부자를 졸지에 외부자로 만들어버리는 '희생양'(르네 지라르)의 논리와 소문의 힘.

도망치던 만희량, 맹강녀를 만나다. 사흘도 되기 전에 장성 짓는 곳에 끌려간 만희량, 남편을 찾아 먼 길 떠난 맹강녀. 이미 남편이 죽은 것을 알고 맹강녀가 통곡을 하니 하늘도 감동하여 남편이 묻힌 곳의 장성이 무너짐. 남편의 유해를 찾기 위해 핏방울을 떨어뜨림.
남편의 유골을 수습하여 떠나려고 할 때 진시황이 소문을 듣고 오다.

눈물의 힘- 쑤퉁의 『눈물』(신화 다시 쓰기)

(3) 양축梁祝 liangzhu- 나비로 변한 사랑

리안李安감독, 「와호장룡」으로 이름을 떨친 뒤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보았던 「양축」의 감동에 대해 말하다.
양산백梁山伯liangshanbo과 축영대祝英台zhuyingtai의 사랑이야기.

남장을 한 부잣집 딸 축영대, 한눈에 반한 양산백을 따라 서당에 가서 3년 동문수학. 축영대가 여자인 것을 눈치 채지 못한 양산백. 그러나 마침내 사실을 알게 되어 사랑에 빠진 양산백과 축영대.
(남장, 3년 동문수학의 모티프는 제주도 신화 '자청비'에도 동일하게 등장함.)

축영대 아버지의 반대로 양산백이 죽으면서 이야기는 비극으로 진행됨.
축영대가 양산백의 무덤으로 들어간 후 두 마리 나비가 날아오름.
-중국문화에서 '나비'의 이미지는?

우리나라 춘향전만큼 많이 리메이크 된 양축이야기.

(4) 백사전白蛇傳

천년동안 수련을 한 백사, 오백년 된 청어靑魚와 더불어 사람이 되다.
사람이 되어 사랑을 알게 된 백사 백소정白小貞(백낭자白娘子bainiangzi), 허선許宣이라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다.

보슬비 내리는, 물안개 자욱한 항저우[杭州] 서호西湖에서 일어난 이야기.
한약방에 근무하는 허선을 사랑하게 된 백소정, 그와 함께 살다. 그러나 뱀이 인간이 되는 것을 요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중 법해法海는 끝까지 백낭자를 추적, 허선을 찾아와 아내가 뱀이라는 사실을 알려줌. 단오 날, 뱀을 쫓는 술 웅황주雄黃酒를 마시게 하면 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법해의 말에 넘어간 허선. 백소정이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허선은 기절해서 죽음. 그를 사랑한 백소정,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곤륜산 영지靈芝를 가져다가 허선을 살려냄. 허선의 아이를 임신. 그러나 끝까지 백낭자를 의심한 어리석은 허선, 사랑을 잃다. 허선이 법해와 함께 있던 금산사金山寺가 백낭자의 법술로 물에 잠기고, 백낭자는 법해와 최후의 일전을 벌임. 결국 법해에

게 잡혀 뇌봉탑雷峰塔 아래에 눌려있게 됨.

1924년, 서호가의 뇌봉탑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현대문학 작가 루쉰[魯迅]은 법해를 조롱함.
뱀이 사람으로 변해 인간의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요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법해를 사람들은 오히려 미워하고, 허선과 백사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함. 그것은 바로 백낭자가 허선에 대해 갖고 있던 진실한 마음, 즉 '진정眞情' 때문.
(리루이, 『사람의 세상에서 죽다』)

장이머우, <인상서호 印象西湖>-2007년부터 공연 시작함.

2. 극에 빠지다-청춘판「모란정」

중국의 공연예술은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음. 신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장소가 바로 희대戱臺. 중국 전역의 곳곳에 남아있는 명나라, 청나라 때의 희대는 신을 즐겁게 하는 장소이면서 또한 인간이 함께 즐기는 공간.
중국만큼 신들이 즐거운 땅은 없어 보임. 다양한 신들이 모여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 그곳이 중국.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던 그들의 생존에 대한 간절한 욕구를 절실하게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의 민간신앙. 현실에서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복 신앙이라고 해서 그 종교를 '고급' 종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지형도- 산지와 고원, 평지의 비율을 주의 깊게 볼 것. 인간의 삶은 지리 환경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 골목길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신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곳.)

중국의 연극 역시 '경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지방극들이 존재함. 중국의 연극은 원나라 때에 본격적으로 발달.-> '원곡元曲 4대가大家'

(1) 원나라 때 극작가

1) 관한경關漢卿-
원곡 작가 중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인물. 극본을 직접 쓰고 연출, 배우 노릇까지.
당시 희곡전문가이면서 연극계의 지도자였던 인물.
광대, 기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밑바닥 인생을 체험
1958년, 유네스코, '세계를 이끈 문화 명인'으로 선정함.

“나는 쪄도 문드러지지 않고 삶아도 익지 않으며 망치도 쳐도 납작해지지 않고 볶아도 터지지 않는, 소리가 쟁쟁 **나는 구리로 된 완두콩**이라오.... 당신들이 내 이를 뽑아버리고 내 입을 비뚤어지게 하며 내 다리를 못 쓰게 하고 내 손을 끊어버리며 하늘이 나에게 나쁜 병을 주어도 나는 극단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염라대왕이 직접 나를 부르고 귀신이 와서 날 잡아가며 나의 혼백이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늘이시여! 나는 그때 가서야 이 극마당에서 떠나갈 것입니다!”(「일지화(一枝花)□불복로(不伏老)」

「두아의 원한(두아원: 竇娥寃)」(「유월설(六月雪)」)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을 놀라게 한 두아의 원한(感天動地竇娥寃: Snow in midsummer)」)
두아, 세살에 고아. 채씨집 민며느리, 남편 죽고 시어머니 채씨와 살아감.
고리대금업을 하는 시어머니.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는 새노의賽盧醫.
장려아張麗兒 부자父子. 장려아 아버지 독살. 두아에게 누명. 뇌물을 먹은 재판관. 시어머니에게 죄가 갈까봐 거짓 자백. 사형을 받게 됨. 두아의 저주(유월에 내리는 눈).

아무 이유 모르고 형벌을 받게 되어버렸네/
억울함을 외치니 하늘도 놀라네/
잠시 후면 떠도는 혼이 먼저 삼라전에 이르겠지/ 어찌 하늘과 땅 원망치 않으리오.

세상 끝난 듯 울다가 웃음도 나왔다가 /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세 가지 소원으로 / 나의 결백을 밝힐 거야.

기이한 일로 세상에 전한다면/ 두아의 억울함 풀어지겠지
뜨거운 나의 피 모두 깃대 위 흰 비단으로 솟아오를 거예요

두 번 째 두아 소원/ 한창 더운 때이지만/ 가슴 가득한 원한 불처럼 뿜어져/
육각 얼음 꽃 솜처럼 깔려 / 나의 시체를 드러나지 않게 해줘/
흰 수레에 싣고 흰 말로 끌어내서/ 보낼 필요 없을 거야.

하늘도 나의 소원 들어주셔서/ 이곳 삼양현 3년 동안 가뭄이 들거에요
이 모든 것 관리들이 잘못한 때문/
뜬 구름 나를 위해서 어두워져/ 구슬픈 바람도 날 위해 불어/
세 가지 소원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나의 한 풀리리.

2) 마치원馬致元-

대도大都(지금의 베이징) 사람. 차와 소금 등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으나 부패한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산속에 은거.

「한나라 궁궐의 가을(한궁추漢宮秋)」

궁정화가 모연수毛延壽, 입궁하는 궁녀들의 초상화를 뇌물 받고 그려줌.
뇌물을 주지 않은 자귀秭歸 출신의 왕소군王昭軍. 궁정화가의 비리.
비파소리에 만나게 된 원제元帝, 왕소군을 명비明妃로 책봉함.
모연수는 비리가 탄로날까봐 미인도를 들고 흉노에게. 모연수의 계책.
스스로 청하여 국경 너머로 건너가는 왕소군. 흑룡강에 투신자살.
흉노는 모연수를 압송시킴. 모연수 참수.
(원래 『한서』와 『후한서』에 기록된 내용과 다름.)
☞ 가장 큰 이유는 극적인 재미와 감동.

3) 백박白樸

아버지가 금나라 추밀원 판관을 지냈고 금나라의 유명한 시인 원호문元好文의 친구였음.
백박 7살 때 송나라와 원나라가 연합하여 금나라를 멸망시키니, 난리 통에 아버지와 헤어진 백박을 원호문이 키워줌. 원나라가 들어선 이후에 관리 노릇하지 않음.

「오동잎에 내리는 비(오동우梧桐雨)」

백거이의 「장한가長恨歌」에 근거한 작품.
당명황唐明皇과 양옥환楊玉環의 사랑이야기.
귀비 양옥환, 안록산의 난, 서촉으로 피난가는 현종.
마외의 언덕[마외파]에서 죽은 양귀비.

4) 왕실보王實寶-

대도 사람. 관한경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

「서상기(西廂記)」(崔鶯鶯待月西廂記)

당나라 소설 「앵앵전」에 근거. 최앵앵, 어머니 정씨, 보구사普救寺.
선비 장공張珙, 반란군 두목이 앵앵을 내놓으라고. 어머니 정씨는 해결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고

함. 장생이 친구의 도움으로 해결. 정씨는 딸을 주지 않음.
장생, 거문고곡 '봉구황鳳求凰'을 타며 앵앵의 마음을 떠봄.
그것에 대한 앵앵의 편지. '홍낭紅娘'의 역할
달을 맞은 서쪽 별채 아래待月西廂下
바람을 맞이하여 창문 반쯤 열려놓았네迎風戶半開
담 넘어 꽃 그림자 흔들리니隔墻花影動
님께서 오시는지 疑是玉人來

"온 세상 모든 연인들, 다 부부로 맺어지길 원하네(願普天下之下有情的都成了眷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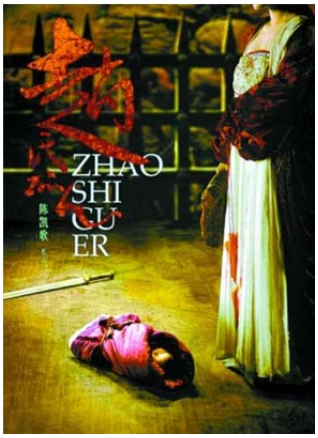
5) 정광조鄭光祖「천녀의 떠도는 영혼(倩女離魂: 천녀리혼)」-> 영화「천녀유혼」

여주인공 장천녀(張倩女)와 남주인공 왕문거(王文擧).
장천녀의 어머니가 왕문거 과거 급제해야 딸과 결혼시킨다고.
천녀는 몸은 누운 채 영혼만 문거를 따라 서울로 감. 장원 급제 후 함께 돌아옴.
영혼과 합쳐지는 몸.

6) 기군상紀君祥「조씨고아趙氏孤兒」

춘추시대 진晋나라 영공靈公 시대, 『사기』「조세가趙世家」의 기록에 근거.
조순趙盾과 도안屠岸賈 집안의 반목.
권세를 잡은 간신 도안고, 충신 조순 일가 300명을 주살. 공주의 부마였던 조순의 아들 조삭趙朔까지 죽이고 임신한 공주가 아이 낳기를 기다렸다가 아이마저 죽이려 함. 공주는 정영程嬰에게 아이를 맡김. 궁정 문을 지키던 한궐韓闕, 정영을 통과시켜 주고 자결함.

정영, 공손저구公孫杵臼에게 아이를 맡기려 하지만, 공손저구가 계책을 일러줌.
도안고는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함.
정영, 자신의 아이를 대신 죽게 하고 조씨고아를 기름.
도안고의 양아들처럼 길러진 조씨고아, 결국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간신 도안고를 처단함.
프랑스의 볼테르에 의해 일찍이 유럽에 소개됨.
티안친신(田沁)-곤극[一六九九 도화선(桃花扇)] / [조씨고아]



2. 탕현조湯顯祖: 1550-1617의 『모란정牡丹亭』

재상 장거정張巨正이 탕현조의 명성을 존중하여 아들을 보내 친분 맺으려 했으나 탕현조가 이를 거절. 장거정은 이에 탕현조를 과거에서 탈락시킴. 결국 장거정이 죽은 뒤에야 탕현조는 진사가 됨.(34세) 직언을 하라는 신종神宗의 말을 믿고 상소문 올렸다가 좌천됨.
절강 수창현에서 관리들의 부패 목도하고 사직. 고향인 강서江西 임천臨川으로 돌아감.
탕현조는 '중국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인물.

탕현조의 장편 「모란정」(55척).
『모란정』은 사랑이야기.
남송시대 광주廣州의 유진경柳眞卿, 꽃 재배하는 선비, 화원 매화나무 아래에서 아름다운 아가씨와 일생을 약속하는 꿈. 이름을 유몽매劉夢梅로 바꿈.
복건福建 태수 두보杜寶의 딸 두여낭杜麗娘, 하녀 춘향春香과 후원에서 놀다가 잠. 손에 버들가지 든 선비와 모란정 부근에서 혼인 서약하는 꿈.
꿈에서 깨어난 두여낭, 꿈속의 연인을 그리다가 죽음.
"나를 매화나무 아래 묻어주렴. 내 자화상을 태호석 밑에 넣어주렴."
시험 보러 수도로 올라가던 유몽매, 두여낭의 초상화 발견, 저녁에 나타난 두여낭의 영혼. 묘를 파게 하여 부활. 유몽매 과거 급제. 아버지의 오해.

그리고 둘의 만남과 재생. 환상과 꿈. 참된 애정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묘사.

*** 모란정 신드롬~~**

양주揚州의 금봉전金鳳鈿-“그대의 부인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누강婁江의 유이낭兪二娘-“가엾은 두여낭, 나는 세상을 떠나네”

항주杭州 여배우 상소령商小玲- 실연하고 두여낭 배역 맡았다가 자살.

내강內江의 소녀-“당신의 첩이 되게 해주소서”

곤극 청춘판「모란정」

곤극은 16세기, 명나라 때 강소성 곤산현 일대에서 유행한 연극.

피리나 생황, 비파 등을 주로 사용함.

19세기까지 수백 년 간 성행하다가 경극에 밀려 났으나, 최근 쟝쑤[江蘇]성 쑤저우[蘇州]곤극원의 활동을 통하여 다시 살아남.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청춘판「모란정」-바이셴용(白先勇), 쑤저우 곤극원(崑劇院).

55절에서 29절로 줄임.

주제는 ‘情’--> 꿈속의 사랑[夢中情], 인간과 귀신의 사랑[人鬼情], 인간세상의 사랑[人間情]